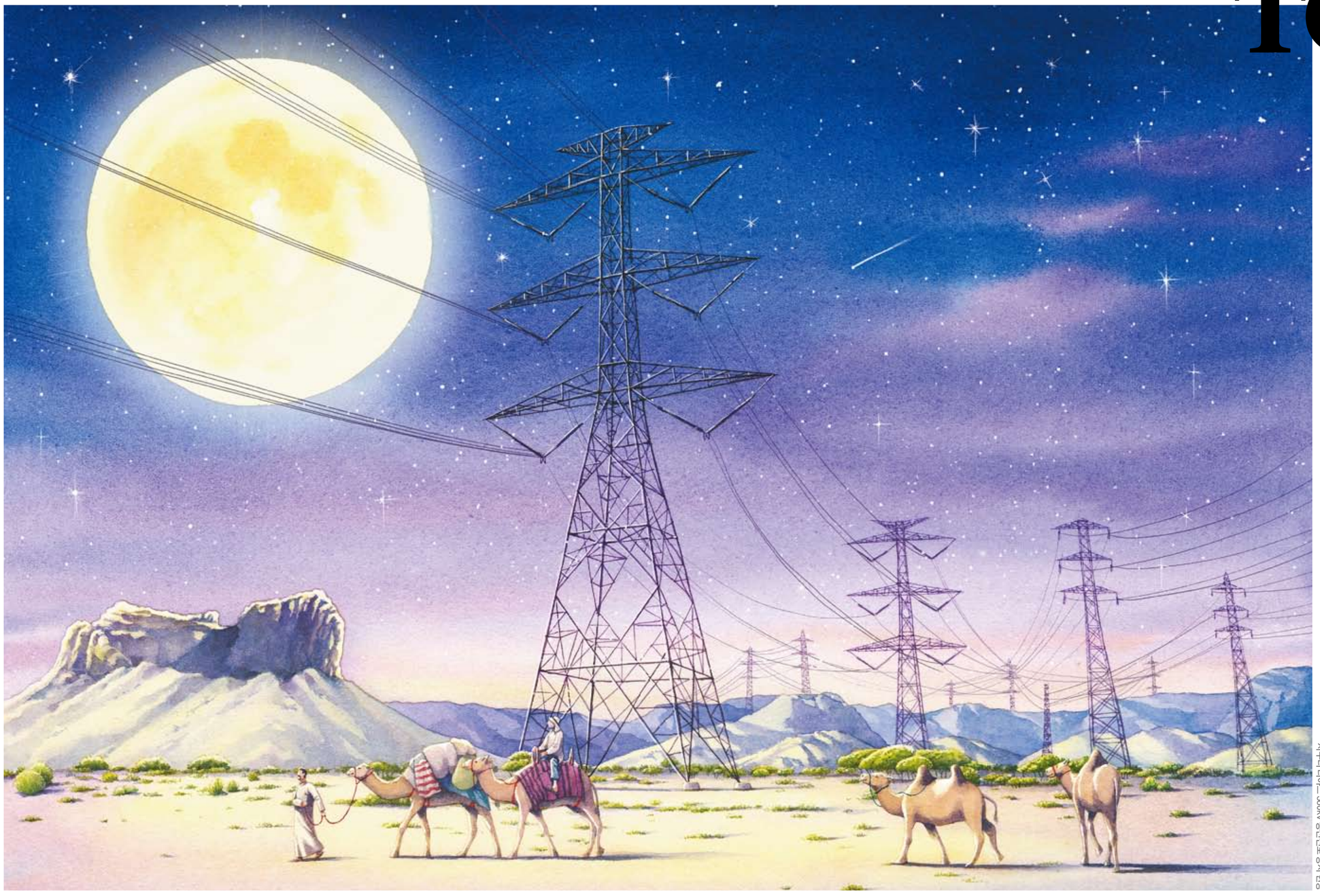
Vol 380 2019/11/21 Thursday

발행인 박동욱 **편집인** 한성호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신고번호** 종로 다0049

Great company Great people · culture · value

HYUNDAI E&C TODAY



사우디 리야드 380kV 송전선로 공사 현장

ART+H

Riyadh 380-kV transmission line construction in Saudi Arabia

현대건설의 이름으로 사막을 가로지르는 은빛 물결

About 30 minutes away from Saudi Arabia's capital Riyadh, a vast canyon spreads out. Against the wild desert, Hyundai E&C is writing a new history of light.

The builder's 380-kV transmission line construction project includes expanding an electrical power grid to supply electric power produced in the suburbs of the kingdom to a number of districts of Riyadh. Since its commencement in 2015, the construction site built 710 transmission towers 70 to 90 meters high in the extensive desert. The transmission lines extend 256 kilometers in total, which is equivalent to the distance between Seoul and the eastern coast of Korea.

Continued on page 6, 7

열사의 땅,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남서쪽으로 30여 분 내달리면 마치 그랜드 캐니언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협곡 지대가 이어진다. 이 웅장한 사막을 배경으로 현대건설이 새로운 빛의 역사를 쓰고 있다.

'사우디 리야드 380kV 송전선로 공사 현장'은 사우디 외곽에서 생산한 전력을 리야드 내 여러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전력망을 확충하는 프로젝트. 현장은 2015년 착공한 이래 드넓은 사막 위에 철탑 710개(높이 70~90m)를 촘촘히 세웠다. 그 거리가 서울에서 동해안까지(256㎞)와 맞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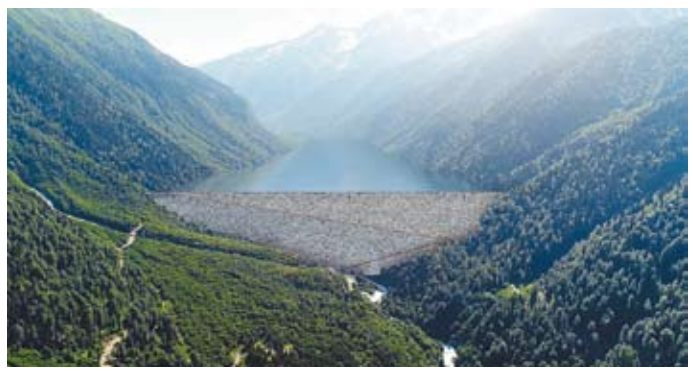
관련기사 6, 7면

THE H TV commercial launched

Our company has released a new commercial on Hyundai E&C's premium housing brand THE H.

This advertisement campaign is the first TV commercial since the brand launch in 2015. It appeals to viewers by delivering the rarity and luxurious value of the premium apartment brand under the theme of "Perfection that never existed before." Together with beautiful footages and an artistic harmony between white and pure black, the symbolic colors of THE H, the new commercial promotes what THE H brand pursues such as "flawless location, secure privacy, considerate services and special community."

Hyundai E&C selected as preferred bidder of Nenskra hydropower plant in Georgia



Our company has established our first bridgehead to enter the Georgian construction market located on the boundary between Europe and Asia.

Hyundai E&C and its incorporated joint venture (IJV) Limak, Turkey's local construction company, have been selected as the preferred bidder of the 737-million-dollar construction project on November 15. The client is JSC Nenskra Hydro, a special purpose vehicle established by a consortium between Korean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nd the Georgian government, and the construction period will last for 60 months. Our company plans to conduct the project on a turnkey basis.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 TV 광고 론칭

11월 16일 온에어… '세상에 없던 완벽함 THE H'

우리 회사가 프리미엄 주택 브랜드 '디에이치(THE H)'의 브랜드 광고를 공개했다.

2015년 브랜드 론칭 후 처음 선보이는 이번 TV 광고는 '세상에 없던 완벽함 THE H'를 테마로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의 희소성과 고품격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광고는 디에이치의 첫 번째 입주 단지인 '디에이치 아너힐즈'를 배경으로 일반 아파트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디에이치의 위상을 표현했다. 아름다운 미장센과 디에이치의 상징 컬러인 퓨어블랙과 화이트가 감각적으로 어우러진 이번 광고는 브랜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입지의 엄격함, 프라이버시의 철저함, 서비스의 섬세함, 커뮤니티의 특별함'을 풀어내고 있다.

우리 회사는 2015년 4월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를 처음 선보인 이후 '디에이치 아너힐즈' '디에이치 라클라스' '디에이치 포레센트' 등을 차례로 공개했다. 실제로 올 9월 대중에게 첫 공개된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대한민국 대표 프리미엄 아파트의 기준을 세웠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이번 TV 광고를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희소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7.4억 달러 규모… 지속적인 시장 다변화 전략 주효

우리 회사가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경계에 있는 신생 국가 '조지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우리 회사와 터키 현지 업체 리막(Limak) IJV(Incorporated Joint Venture, 합작회사)는 11월 15일 총 7억3700만 달러(약 8691억원) 규모의 수력발전소 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조지아 정부의 합작법인인 JSC Nenskra Hydro가 발주한 것으로, 총 공사 기간은 착공 후 60개월이다.

이 프로젝트는 조지아 북서부 산악지대인 스와네티 지역 넨스크라(Nenskra)강 일대에 280㎿급 수력발전소, 댐(높이 130m, 길이 887m), 터널 2개소 등을 짓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연평균 발전량은 1219GWh(기가와트시) 규모로, 조지아 국민 60여만 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우리 회사는 엔지니어링·구매·건설 등 전 프로젝트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총 공사금액 7억3700만 달러 중 당사분은 3억3200만 달러(약 3911억원)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조지아 첫 진출의 쾌거로 이어졌다"며 "전통적 수주 우위 지역뿐 아니라 독립국가연합(CIS), 중남미 등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수주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우루과이 푼다 델 띠끄레 복합화력발전소 현장 준공식

우리 회사의 우루과이 첫 진출 현장인 '우루과이 푼다 델 띠끄레 복합화력발전소'가 11월 11일 성황리에 준공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루시아 토폴란스키 우루과이 부통령, 길레르모 몬체키 산업부 장관, 곤잘로 카사라비자 우루과이 국영 전력청장, 우리 회사 에너지사업부 손준 전무를 비롯해 발주처 및 협력사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우루과이 국영 전력청(UTE)이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 서쪽 40㎞에 위치한 푼다 델 띠그레 지역에 530㎿급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다. 향후 우루과이 발전설비 용량의 24%(최대치)를 담당할 전망이다.

우리 회사는 프로젝트의 엔지니어링·구매·시공을 맡아 공사를 수행한 이래, 지난 11월 1일 공사완공증명서(PAC)를 받았다. 발주처 관계자는 "현지의 많은 관심을 반영하듯 행사 당일 현지 언론의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며 "준공까지 많은 도움을 준 현대건설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2019 현대건설 기술공모전' 시상식 개최

우리 회사가 지난 10월 30일 서울 계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2019 현대건설 기술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우리 회사 박동욱 사장, 박찬수 토목사업본부장, 서상훈 구매본부장, 이석홍 R&D센터장을 비롯해 협력사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협력사를 발굴하고, 상생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리 회사는 심사를 통해 22개 협력사(토목 10건, 건축/주택 8건, 플랜트 4건)를 선정했다.

'2019 현대건설 H-Members Day' 진행

우리 회사가 11월 7일 서울 계동 본사 대강당에서 '2019 현대건설 H Members Day'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주요 협력사와 상생협력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리 회사 임직원 및 협력사 대표이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웰컴리셉션 ▶인사말 ▶특강 순으로 진행된 행사는 구매본부장의 '구매정책 2019', 전략기획사업부장의 'Smart Construction', 안전지원실장의 '안전 프로세스'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그룹사 뉴스

현대자동차그룹 중국 CSR 발전지수 자동차 기업 부문 1위

현대자동차그룹이 11월 17일 중국 CSR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수로 평가 받는 중국사회과학원 CSR연구센터의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 자동차 기업 부문 1위에 올랐다. 특히 올해는 전체 기업 순위에서도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4위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펼친 사회공헌 사업의 진정성을 중국 정부 및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내 뉴스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갱신 심사 통과

우리 회사가 지난 10월 28일부터 4일간 대한전기협회(KEA)로부터 원자력품질보증 자격 인증 심사를 받고 전력산업기준(KEPIC) 인증서 갱신에 성공했다. KEPIC 인증은 국내외 원자력발전소 입찰·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제도로, 우리 회사는 원자력 기계(MN), 구조(SN), 전기(EN), 공조설비(HN) 등 4개의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우리 회사는 KEPIC이 요구하는 원자력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다시금 인정받았다.

품질관리실 관계자는 "7차례 걸쳐 KEPIC 인증 갱신에 성공하며 원자력 시공 기술력을 입증받았다"며 "지난 반세기 원전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외 원자력 사업 수주를 위한 시공 품질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 안전문화 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우리 회사가 11월 15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화성 롤링힐스에서 진행된 '2019 그룹사 안전관리 부문 워크숍'에 참석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그룹 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우수사례 상호 벤치마킹을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우리 회사를 포함해 그룹 내 안전 부문 담당자 7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2019년 안전관리 우수 사업자 포상 ▶안전문화 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 ▶그룹사 내 안전·환경관리 신기법 적용사례 발표 ▶외부 전문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우리 회사는 '안전문화 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에너지·온실가스 발생량 예측특허'를 주제로 우수상을 받았다.

Vol 380
2019 / 11 / 21 Thu
http://news.hdec.kr

Asean-Korea summit to open door for innovation

A rendering of an Asean booth for the 2019 Asean-Republic of Korea Smart City Fair, which will be held between Nov. 25 and 27 at Bexco in Busan.

Nov 15

With 10 days to go until the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the meeting, originally designed to celebrate the multilateral partnership, is poised to serve as an essential conference on innovation, digital transformation and other fast-growing industries in the region.

President Moon Jae-in has hailed the event, slated for Nov. 25-27 in Busan, as an important avenue for the New Southern Policy initiative that aims to boost engagement in diplomatic and economic relations.

Nearly 10 sessions are lined up to delve into subjects such as the development of start-ups, smart cities and beauty trends in Korea, providing a rare opportunity for business leaders from Korea and Asean member countries to share ideas and build networks.

Established in 1967, Asean is made up of Brunei,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Myanmar, the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Innovative growth

At the center of the summit is a celebration of the successfu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ides in emerging technologies. A wide range of platforms and services jointly developed by 40 companies from across Asean and Korea will be put on display at the Asean-Republic of Korea Innovation Showcase 2019.

The showcase will highlight new growth sectors such as smart farming, renewable energy, electric vehicles, hydrogen cars and connected home appliances and health care devices.

The session, held at Bexco, will bring together the president, Trade Minister Sung Yun-mo, Kwon Pyung-oh, head of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d the leaders of the 40 companies and institutions.

Founders and leading figures from unicorn start-ups, whose value is estimated at over $1 billion, will share their experiences, including Andrew Lee, head of international at Jakarta-based Gojek, Jung Sang-yeop, a director at Coupang, and Fajrin Rasyid, founder of Indonesian e-commerce firm Bukalapak.

A new phase of trade and investment

Industry heavyweights will gather at the Asean-Republic of Korea CEO Summit on Nov. 25 to discuss trade relations and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The discussion could be particularly relevant at a time when the U.S.-China trade war clouds global trade prospects.

With over 500 participants including company representatives and Korean economic leaders, the opening speech will be delivered by Park Yong-maan, chairman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The following sessions will bring together Jim Rogers, CEO of Beeland Enterprises, Jung Hun-taek, vice president of Hyundai Motor, and Joe Studwell, a journalist focusing on Asian economics, as presenters, alongside the chairmen of the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from Vietnam,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The heads or ranking officials of the investment offices from the 10 Asean nations are scheduled to deliver speeches on the financial climate in each country between Nov. 25 and 26 at Bexco.

K-beauty festival

As cosmetics products have emerged as one of Korea's key export items, especially to the Asean nations, the Asean-Republic of Korea K-Beauty Festival will be devoted to introducing the latest high-tech cosmetics and providing experience zones for best-selling items.

Hosted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beauty festival will be focused on promoting products from around 40 smaller cosmetics makers based in Korea.

By KOREA JOONGANG DAILY

Hello! Foreign Staff

Be active! be posi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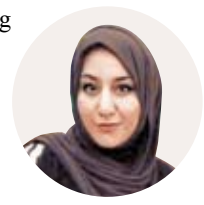
Saja Satar
Clinic Assistant
in Iraq Karbala Refinery Project

Q Could you briefly tell us about yourself?

I am Saja, 29 years old. I work as a HSE officer in the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Department. What I like the most in my job is that it enables me to save and help a large number of people. I like new challenges because they help develop my ability and skills in life. My favorite hobby is reading. It's the only way that transports me to various places and extends my understanding. I spent four years in this career. I went through a lot of challenges that refined my characters not only as a person but as an employee. The respect-based relationship between me and my management influences my dedication to this work.

Q What made you join Hyundai E&C?

Being a member of one of the biggest and the most important companies like Hyundai E&C is my pride as well as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work for a global company. This experience added a lot of strengths to my career. I feel proud of having an impact on this significant project which serves my country by joining Hyundai E&C.



Q What do you think of the most important thing to carry out your work?

I believe that important values to carry out my task lie in being responsible, keeping promises, making differences and being positive to achieve better for my company and all the people who depend on me.

Q We would like to hear your tips for getting along with Korean staff.

Accuracy in work performance and respect for time can create a comfortable working environment, and I consider myself as a responsible person suited for any job positions. All these are enough reasons for getting along with Korean staff.

10 Minute Korean Lessons

At a shoe store

Do you have these shoes in size 230?
이 신발 230 사이즈 있어요?

Ee sheen-bahl ee-behk-sahm-sheep ssah-ee-jeu ee-ssaw-yo?

Wait a minute. I will check.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확인해 볼게요.

Ne. Jahm-shee-mahn gee-dah-ree-seh-yo. Hwah-gee-neh bol-ggeh-yo.

Related phrases

Heel
굽
goop

The heels are too high.
굽이 너무 높아요.

Goo-bee naw-moo no-pah-yo.

The heels are too low.
굽이 너무 낮아요.

Goo-bee naw-moo nah-jah-yo.

The heels are too thin.
굽이 너무 얇아요.

Goo-bee naw-moo yahl-bah-yo.

The heels are too thick.
굽이 너무 두꺼워요.

Goo-bee naw-moo doo-ggaw-wo-yo.

Other expressions

Sneakers/Trainers
운동화
woon-dong-hwah

Low heel shoes
단화
dah-nwah

Platform heel
가보시힐
gah-bo-shee-heel

Shoehorn
구둣주걱
goo-doot-jjoo-gawk

Shoelaces for sneakers
운동화 끈
woon-dong-hwah ggeun

Shoelaces
신발 끈
sheen-bahl ggeun

The content above is from 'Korean Phrasebook for Travelers' by Talk To Me In Korean, a company that provides free Korean language learning materials. Check out TalkToMeInKorean.com for further lessons.

TALK TO ME IN KOREAN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희망의 새싹을 틔우다

갑자기 차가워진 바람에 옷깃을 꽁꽁 싸매게 되는 계절. 하지만 우리 회사는 이라크 환아 초청 치료 · 격려 행사와 어린이 재난방재용 경안전모 보급 사업으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날을 보냈다.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희망을 선사하고자 진행된 웃음꽃 활짝 핀 현장을 들여다보자. 글=이진우 / 사진=이슬기

1, 3, 4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과 공연에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다. 2 우리 회사와 이라크의 화합, 어린 아이의 평화로운 미소를 그린 샌드아트. 5 우리 회사 서산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한 취재진. 특히 ESS에 큰 관심을 보였다. 6, 7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이라크 환아의 성공적인 수술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신뢰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동행
이라크 환아 초청 치료 · 격려 행사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 한국과 이라크를 잇다

지난 10월 30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특별한 만남이 이뤄졌다. 이라크 환아의 성공적인 수술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 우리 회사 정진행 부회장, 한병도 이라크 특임 외교특별보좌관, 하이더 쉬야 알바락 주한 이라크 대사, 김성준 현대차 상무 등이 맞이하는 가운데 테플라(2), 야칸(9), 그리고 무스타파(26)가 가족 및 이라크 취재진과 함께 1층 로비에 들어섰다. 정진행 부회장이 꽃다발을 건네자 야칸이 티 없이 맑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수술 후 건강해진 아이들, 아이를 안은 아빠, 그들을 지켜보는 관계자 모두가 행복한 순간이었다. 전문 큐레이터의 안내에 따라 모터스튜디오를 둘러본 이들 앞에 샌드아트와 동물마술 공연이 펼쳐졌다. 손끝의 섬세한 움직임에 따라 피어나는 중동의 모래바람과 웅장한 플랜트 현장, 우리 회사와 이라크가 화합을 이루는 장면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눈길을 떼지 못했다.

이라크 환아 의료 지원은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이라크우호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이라크의 아픈 아이들을 초청해 치료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에도 심장병 환아와 보호자 22명을 초청해 치료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0월 15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입국한 아이들은 경기도 부천시 세종병원(심장병)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병원(인공안구 재교정)에서 정밀검사와 수술을 받았다. 테플라가 앓고 있는 양대혈관우심실기시증과 야칸의 심방중격결손은 선천성 질환으로, 어린 시절 한 번의 수술이면 완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료 환경이 열악한 이라크에서는 치료가 쉽지 않다. 포탄 피폭으로 눈을 다쳐 삽입한 인공안구를 다시 교정하는 무스타파의 수술도 마찬가지. 이들의 쾌유가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온 이유는 긴 내전과 잦은 테러로 위험에 내몰린 아이들에게 선사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테플라, 야칸, 무스타파는 각각 쿠르드, 수니, 시아파 소속의 어린이로, 어려운 현지 정세에 여러 종족을 대표하는 환아의 치료를 도왔다는 데 의미가 깊다. 테플라의 아버지는 "이라크에서는 여러 가지로 형편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오롯이 우리 상황을 고려해 수술을 진행해 준 현대차그룹에 감사드린다"는 말로 고마움을 표했다.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우수한 기술력

이번 행사에는 현대차그룹의 의료 지원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인 이라크 공영 방송국 취재진도 동행했다. 환아들의 치료 과정과 격려 행사를 취재하고 더불어 충남 현대차 아산공장, 우리 회사의 서산 태양광발전소,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현장 등 현대차그룹의 국내 사업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산 태양광발전소의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흥미를 보인 취재진들은 현장 관계자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누며 시설을 둘러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사업장 견학을 마친 한 리포터는 "건설·자동차 산업 전반에 녹아 있는 현대차그룹의 유수한 기술에 놀랐다"며 "이 대단한 기술력과 시공 사례를 이라크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우리 회사는 1978년 '바스라 하수도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알부사임 화력발전소' '바그다드 의료단지' 등 총 39건, 약 70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최근에는 약 60억 달러 규모의 '카르발라 정유공장' 공사의 주관사로 이라크 건설산업을 이끌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이라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올해 초 정부 외교 특사단의 이라크 방문 당시 논의된 것으로, 그간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우리 회사에 대한 신뢰가 더해져 진행됐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이라크 환아 지원 사업은 총 2회차로 진행돼 12월에도 4명이 입국해 수술할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을 현지에 많이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이 양국의 우호 증대는 물론 이라크의 통합과 화합까지 넓은 범위에서 희망을 그리는 시간이었던 만큼 앞으로도 우리 회사와 이라크의 활발한 교류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1 국내 최초로 개발한 재난방재용 경안전모. 경주 감포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점차 학대 보급할 예정이다. 2 안전모 착용법을 배우는 아이들. 3, 4 아이들이 모의 대피훈련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5 재난 대피훈련 학년별 대표 위촉장 시상. 6, 7 이번 재난안전교육과 경안전모 전달식에 플랜코리아 김대희 홍보대사가 함께했다. 8 노란 안전모를 쓴 캐릭터 H KIDIANS.

머리를 안전하게, 아이를 안전하게!
재난방재용 경안전모 보급 및 재난안전교육 사업 Safe Cap

지진 모자 쓰Go! 운동장으로 Go!

지난 11월 1일, 경주 감포초등학교에서 재난방재용 경안전모의 론칭 행사가 열렸다. 우리 회사가 플랜코리아,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블루인더스 등 NGO(비정부) 단체, 사회적 기업과 함께 개발한 이 안전모는 국내 최초 재난용 경안전모로, RF접이 내장돼 사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보호대와 에어백의 이중 보호로 내충격성과 내관통성이 우수해 아이들의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는 산업용, 레저용 안전모 기준만 있던 우리나라의 첫 재난용 안전모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 봉사자를 포함한 우리 회사 임직원을 비롯해 안전모 개발에 참여한 기업과 경주교육지원청,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각 교실별로 안전 강사와 교육 봉사자가 배치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안전교육의 시간. 노란 안전모를 쓴 캐릭터 H KIDIANS의 귀여운 등장에 아이들이 웃음을 빵! 터뜨린다.

지진 피해 사례와 경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2016년 규모 5.8의 지진이 경주를 뒤흔든 이후 아이들의 경각심이 한껏 높아진듯 했다. 지진이 났을 때 머리를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환기하고 지진송을 함께 부르며 대피요령을 익혔다. 귀에 쏙 박히는 멜로디에 아이들은 이내 활기찬 목소리로 따라 부른다. 노란 안전모를 쓰고 "하나, 둘, 지진이다~ 신속하게 대피해!" 힘차게 노래를 부르다 보니 슬슬 신이 난 모양이다.

기본 교육을 마친 뒤 모의 대피훈련이 이어졌다. 재난 경보가 울리자 아이들은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한 후 의자 아래 설치된 안전모를 꺼내 쓰고 긴급대피장소로 달려나갔다. 재난방지용 안전모는 아이들이 스스로 빠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약 320g 무게로 가볍게 제작됐다. 접을 수 있는 형태로 수납 케이스에 넣어 개인 의자에 부착할 수 있게 한 점도 빠른 대피를 돕는 요소다.

재난용 안전모로 지진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다

기상청이 발표한 국내 지진 발생 추이 현황에 따르면 연평균 40회 정도 발생하던 규모 3.0(실내의 일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지진이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 이후 2017년 223회, 2018년 115회 발생으로 대폭 잦아졌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시사하는 통계다. 지진 대비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회사는 내진 설계 등과 같은 기술적 역량을 극대화하고, 더불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이날 감포초등학교에 안전모를 전달한 이후 경주의 두 개 초등학교에 우선 기탁하고 내년에는 지진이 발생한 지역 및 경상권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실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체험형 안전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안전성·보완성이 개선된 재난방재용 경안전모 개발로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해가 일어났을 때 기부만 하는 단순 사회공헌을 넘어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혁신형 기업 사회공헌의 첫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회사는 현장의 안전은 물론 사회의 안전을 생각하는 발걸음도 계속해서 내딛고 있다. 이번 재난방재용 경안전모가 어린이, 나아가 미래를 안전하게 보호할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

리야드 380kV 송전선로 공사 현장 국가 개조 프로젝트가 한창인 사우디아라비아, 그 중심에 수도 리야드가 있다. 뉴욕 센트럴 파크 면적 4배 규모의 '킹 살만 파크', 6개 노선의 지하철과 급행 버스 체계, 69만4215㎡에 달하는 메디컬시티 등이 모두 이곳에 조성된다. 리야드 380kV 송전선로 공사는 변화의 물결이 몰아치는 리야드에 전력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로, 2020년 3월 준공 예정이다. 글=박현희 / 현장리포터=김기연 과장, 진병욱 과장(송변전사업실)

Hyundai E&C lights up the central region of Saudi Arabia

Construction and reinforcement of 380kV transmission lines in Riyad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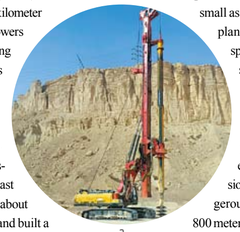
The Riyadh 380kV transmission line construction project, or ST8L, is designed to supply electric power, generated in two power stations including (PP12 and PP13) located in the western part of the capital Riyadh of Saudi Arabia, to the city's downtown and its satellite city Al Jilah without disruptions. Hyundai E&C received the ST8L project on a lump sum turnkey (LSTK) basis in February 2015 with a bid to build the 256-kilometer transmission lines and 710 transmission towers as well as to modify and reinforce the exiting transmission lines. The construction costs approximately 130 million dollars.

Starting with the Asir electrification project and the Riyadh substation project in the 1970s, Korea's primary builder came to the front in the kingdom's transmission and substation market. Over the past three decades, the builder has conducted about 70 transmission and substation projects and built a total of 17,976-kilometer transmission lines accounting for 20 percent of the high voltage electric grid of the country.

In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workers at the construction site had to establish all new construction infrastructures and address problems with the vastness of the construction area and the complexity of the project. To deal with these, they divided the construction site into four portions (referred to as P).

P-1 and P-2 focus on building transmission lines linked to two units of new power plants. P1 and P2 include the construction of 88-kilometer and 169-kilometer transmission lines, and 240 and 454 transmission towers, respectively. P-3 and P-4 are aimed to modify the existing transmission lines by reinforcing and relocating the transmission lines connected with the existing power plants and substations as well as building additional 10 and 6 transmission towers, respectively.

Among other things, the most challenging construction was incorporated into P-3. The P-3 site was considered too small as it was located within the site of the power plant in operation. To make better use of the space, they designed a four-circuit transmission tower, so-called Star Tower, instead of the conventional double-circuit transmission towers.



2

Notably the workers feel a special proud of the P-2 construction. They put efforts into specially designing transmission towers to conduct the project in the dangerous terrain. Each special Towers are about 800 meters apart, which is two times longer than the distance between the ordinary ones.

The ST8L project began in February 2015, and 99 percent of the construction is about to be completed. It is slated to be finished in March 2020.

As of November 2019, the construction site achieved 5,096,362-man hours of no accident throughout all construction processes. Moreover, its outstanding technological prowess and excellent construction capability are well received in the country. It is expected that the ST8L project is able to lay the solid foundation for Hyundai E&C to be awarded new contracts in the central region of Saudi Arabia.

Great People interview

현장의 스마트 소통가

현장소장 이국진 부장대우

이국진 현장소장은 1996년 입사 후 본사 견적팀을 포함, 줄곧 해외 초고압 송전선로 입찰 및 해외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 10월 현장소장으로 부임한 이 소장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 현장과 사무실 간의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을 추구하고 있다.

"송전선로는 일정 간격을 두고 수백㎞가량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보통 400m마다 철탑을 세워야 하는데, 선로 길이가 200㎞면 작업장이 500개소 됩니다. 또 작업장마다 토목·기계·전기·통신 공정 등이 포함돼 있어 공사가 단순하지 않죠. 현장의 엔지니어와 근로자들은 왓츠앱(Whatsapp) 등 메신저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원활한 소통 덕에 무재해 500만 시간 이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무리한 공사 일정도 문제없다!

前 사원지원파트장
김기연 과장(송변전사업실)

2017년 3월부터 올 10월 말까지 현장의 사원지원파트장으로 근무한 김기연 과장이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은 2017년 겨울이다. 장기간 계류 중이던 한 사우디 왕자의 사유지 공사 구간이 리야드의 대규모 정전으로 '승인'이 난 것. 그러나 왕자가 허락한 공기는 3개월이었고, 무리한 일정임에도 집중력을 다한 결과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었다.

"3개월 내에 구간 내 선로를 완공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직영장비 130대, 임대장비 20대, 기초·조립·가설 인원 200명을 투입해 약속한 기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했죠. 이 일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언제나 스탠바이, 현장의 조연출

공무파트 이대형 대리

발주처의 여러 사정으로 공사 기간이 당초 계약보다 크게 지연되자 유휴 장비 및 인력이 발생했다. 공무파트 이대형 대리는 원가 절감을 위해 대기 인원은 사우디 내 다른 송·변전 현장에 투입되도록 하고, 장비를 스탠바이(Stand-by) 상태로 항상 유지해 갑자기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무리 없도록 관리했다.

"송·변전 현장은 공사나 공무 파트 구분 없이 일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당 현장은 국내외 직원 모두 업무를 분업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도록 했습니다. 공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주신 현장소장님 이하 모든 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이 분위기를 준공까지 그대로 이어갔으면 합니다. 현대건설 ST8L 현장 파이팅!"

Hyundai E&C is my pride

Planning Engineer
Orlando P. Momog

My career has been developed during my stay with Hyundai E&C from 2012 as a planning engineer, where I gained knowledge and skills with the help of my colleagues and project managers. All these experiences helped me carry out my assigned tasks with less supervision and at the same time guide my younger colleagues in shaping their careers with Hyundai E&C. Presently, I am assigned for the Riyadh transmission line construction project (ST8L) and looking forward to spending more years at this prestigious organization.

Zoom in

왕족 혁락 없인 공사 진행 No?! 적극적 대처로 발주처 신뢰를 얻다

중부 전력청과의 회의 모습.

사우디전력청은 여타 발주처와는 달리 동부·서부·남부·중부(본청)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리 회사는 1970년대 사우디 송·변전 사업에 처음 진출한 후 약 7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으나, 중부 지역의 수주는 20년 만이었다. 동·서부 지역에서 발주 물량이 넘쳐기 때문. 30여 년간 쌓아온 공사 노하우와 숙련된 기술 인력을 바탕으로 현장을 수주해 냈지만, 중부 전력청과는 신뢰관계가 없었다. 현대건설이 유능하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함께 일한 경험이 없는 것이 이유였다.

우리 회사는 중부 전력청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사 초반부터 최선을 다했다. 발주처가 궁금해하는 공법 등을 정리해 프레젠테이션하고 공정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보고했다. 또 악속한 공기는 반드시 지켰다. 그렇게 반신반의하던 중부 전력청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다.

발주처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은 것은 ROW(Right of Way, 통행권)를 받는 과정에서였다. 사우디에는 왕가의 인사가 3000명에 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그중 많은 수가 리야드와 그 인근에 살고 있다. 현장은 왕족의 사유지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관련 허가는 발주처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왕족은 발주처와 정부기관보다 힘이 셌다. 우리 회사는 ROW를 어려워하는 발주처를 대신해 적극적으로 '왕원(王願)'을 해결했다. 왕가와 그 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송전선로를 수정하는 등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발주처는 현재까지도 이 부분을 가장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덕분에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었다.

256㎞, 710개 송전탑 …
사우디 중부 지역을 은빛으로 수놓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서남부 방향, 거친 모래를 가로지르며 한참을 달리니 생경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크고 높은 바위 협곡이 장관을 이루는 '엣지 오드 더 월드(The Edge of The World)'와 그 위로 세워진 은빛의 송전탑이다. '사우디의 그랜드캐니언'으로 불리는 이곳은 우리 회사가 시공 중인 '리야드 380kV 송전선로(이하 'ST8L') 현장'의 공사 구간으로, 도심지 외는 모두 사막일 것이라는 사우디의 고정관념을 180도 바꿔 놓았다.

ST8L 현장은 리야드 서부 지역의 2개 발전소(PP12·PP13)에서 생산된 전기를 리야드 시내와 위성도시인 알 질라(Al Jilah)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기획됐다. 우리 회사는 총 256㎞ 규모의 송전선로와 710개의 송전탑을 신설하고, 기존 송전선로를 이설·보강하는 프로젝트를 2015년 2월 턴키(Lump Sum Turnkey)로 수주했다. 공사 금액은 약 1억 3000만 달러다.

우리 회사는 1970년대 아시르 전화사업, 리야드 변전소 설치 공사를 시작으로 사우디 송·변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30여 년간 사우디에서 수행한 송·변전 공사는 약 70개. 송전선로의 총 길이는 1만7976㎞로 사우디 초고압 전력망의 20%에 달하는 수치다. "사우디 전력 분야에서는 현대건설의 경쟁자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풍부한 노하우와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우리 회사지만, 입찰 당시는 장밋빛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는 발주처인 사우디전력청(SEC)의 특수성 때문이다. 동부·서부·남부·중부(본청)로 나뉘는 사우디전력청은 지역마다 문서 양식, 설계·시공감리 기준이 달라 각기 다른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회사는 그간 막대한 물량이 몰린 동·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고, ST8L 현장이 위치한 중부 지역에는 지난 20년간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사우디 전역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판단하에 공격적으로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오랜 기간 쌓아온 공사 노하우와 숙련된 기술 인력을 내세고, 이윽고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1

설계 능력과 경제성 최고, 스타·스페셜 타워

문제는 수주 다음부터였다. 수십 년간의 공사로 동·서부 지역에는 공사 인프라(현장사무소, 숙소, 야적장 등)가 모두 갖춰져 있지만 중부 지역은 그렇지 않았던 것. 현장 직원들은 맨땅에 헤딩하듯 모든 기반을 새로 갖춰야 했다. 공사 구간이 넓고 공사 내용이 복잡한 것도 쉽지 않았다. 이에 현장은 4개의 포션(Portion, '이하 P')으로 나눠 공사를 진행했다.

메인 작업인 P-1과 P-2는 2개의 신규 발전소와 연결되는 송전선로를 신설하는 공사다. 송전선로는 각각 88㎞와 169㎞이며, 철탑 수량은 240개, 454개다. P-3과 P-4는 송전선로를 이설(Modification)하는 공사다. 기존 발전소와 변전소에 연결된 선로를 보강하고 이동하는 것으로 추가 철탑이 각 10개, 6개씩 세워진다.

그중 까다로운 공정은 P-3에 포함됐다. 운영 중인 발전소 부지에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공사 부지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 현장은 '어려움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각오로 문제를 타개해 나갔다.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자 새로운 스타일의 철탑을 설계, 기존 2회선 송전탑의 두 개 분량인 4회선 송전탑 '스타타워(Star Tower)'를 탄생시켰다. 높이 90m, 무게 180t에 이르는 스타타워 설치를 위해 300t 유압 크레인과 함께 우리 회사와 10년 이상 함께 해 온 숙련공들이 동원됐다. 현장은 대형 크레인으로 블록을 맞추듯 격자무늬 철 구조물을 하나씩 조립하며 스타타워 2기를 성공적으로 설치했다.

현장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공사는 P-2에 있다. 와디(Wadi, 협곡) 지역인 '엣지 오드 더 월드'를 지나가는 P-2 구간은 선로가 0m(평지)에서 해발 200m까지 오르내렸다. 현장 직원들은 수차례 와디 지역을 다니며 송전탑 스포팅(Spotting) 위치를 선별했다. 위험한 지형에서 진행하는 공사인 만큼 송전탑도 특별하게 설계했다. 스페셜타워(Special Tower)는 일반 송전탑의 두 배 경간인 800m마다 놓을 수 있는 특수 철탑이다. 암반 지역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스페셜타워 덕분에 현장은 자연경관과 은빛 철탑이 조화로운 미관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2015년 2월 착공한 현장은 어느덧 공정률 99%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최근 스타타워 조립 및 가공 송전선 설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공간의 경제성을 위해 우리 회사가 설계한 전주(전선을 지지하는 기둥) 모노폴(Monopole) 및 초고압 케이블 단말 작업 등 잔여 작업만을 남겨두고 있다. 준공 예정일은 2020년 3월이다.

리야드 380kV 송전선로 공사 현장의 최고 자랑은 바로 공정관리다.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송전 공사들을 여타 플랜트 프로젝트에 비해 규모가 작은 탓에 100% 직영(자재·노무·자·기계 설비 등을 직접 조달) 체제로 운영된다. 현장은 외국인 직원들이 '현대건설 직원'이라는 로열티를 가질 수 있도록 본사에 직접 보고(품질·안전 부문 영문 보고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공정 회의에는 한국인·외국인 직원은 물론 공종별 근로자의 리더 격인 포맨(Foreman, 현장 관리직)들도 참여시켰다. 책임감을 부여하며 꾸준히 소통한 결과 난공사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우수한 기술력 – 후속 수주 기대

ST8L 현장의 기술력은 추가 수주라는 값진 결실을 가져왔다. 현장은 P-2의 강한 암석 지대에 록 앵커(Rock Anchor) 공법을 도입했다. 좁고 긴 다이아 드릴머신으로 땅에 구멍을 여러 개 내 철근을 박고, 그 위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기초 공법으로 시공성이 뛰어나다. 그러나 중부 전력청은 지역에서 처음 시도하는 이 공법을 안정성의 이유로 반대했다. 현장은 지질 회사와의 마라톤 회의, 기술 프레젠테이션, 기초 하중 테스트 등을 거치며 발주처를 설득했고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우리 회사는 이 공법으로 약 3000만 달러 규모의 리야드 '킹 살만 공군 비행장' 부지 내 송전선로 이설 공사를 수주, 현재 계약 대기 중이다.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전공정 무재해(509만 6362시간, 2019년 11월 현재)는 물론 남다른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리야드 380kV 송전선로 현장. ST8L 현장을 든든한 반석 삼아 사우디 중부 지역에서의 수주 낭보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1 스타타워 등 송전탑을 배경으로 근로자들이 TBM(Tool Box Meeting)을 하고 있다. 2 오거 머신(Auger Machine)을 이용해 땅을 굴착하고 있다. 3 스타타워 시공 모습. 4 모노폴 기초 작업.

Vol 380
2019 / 11 / 21 Thu
http://news.hdec.kr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이끄는 싱가포르

해외 건설시장 동향 ⑩ 싱가포르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말레이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작은 도시국가다. 천연자원도 없고 역사 또한 50년이 약간 넘을 정도로 짧지만 경제개방정책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고,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경제성장과 함께 꾸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부문별 건설시장 동향과 개발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구민재 해외건설협회 아시아실 부장

1 건축

싱가포르가 도시국가라는 특징을 고려하면 건설시장에 대한 이해가 더욱 쉬워진다. 국토 면적이 721.5㎢에 불과해 토지 이용에 높은 효율성을 요한다. 싱가포르에 고층건물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건축사업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지하공간을 겸비한 고층건물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고층빌딩의 등장에 따른 피해와 문제를 막기 위해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높이를 280m로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도시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라 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향후 10~15년간의 토지 사용 계획을 명문화하는 이 계획은 5년마다 업데이트된다. 2019년 3월에 공개된 마스터플랜(Master Plan 2019)은 ①비즈니스 중심지역에 주거지역 확대 ②3차원 기술을 활용한 지하 개발, ③공원녹지 확대 및 연결 강화 ④기후 변화 등 미래 대비 등에 집중되어 있다.

2 철도

싱가포르의 철도 및 도로교통을 담당하는 육상교통청(LTA)은 지난 5월 25일 중장기 운송 개발 계획인 LTMP 2040(Land Transport Master Plan 2040)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①45분 이내 도시, 20분 이내 마을 ②모두를 위한 교통 ③건강한 삶과 안전한 여행 등에 정책의 방향을 담았다. 이 정책에 따라 North-South Line과 Tomson-East Coast Line의 노선이 확장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함께 다음과 같은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LTA 추진 프로젝트

계획, 추진 중인 프로젝트	연장		역사 수	입찰 시기	
	터널	교량		토목	전기, 기계설비
주룽 지역 라인	-	24km	24	2019년 2분기~2020년 2분기	2021년 이후
싱가포르 횡단철도(1단계)	29km	-	12	2019년 4분기~2020년 3분기	토목공사 계약 후
싱가포르 횡단철도(2&3단계)	21km	-	18	2021년 이후	2~3년 내
톰슨 라인(동부해안선 연장)	상세설계 후 공고 예정			2020년~2025년	
도심철도 2 연장	상세설계 후 공고 예정			2022~2027	
북-남철도역사건설	-	-	2	2021~2026	

출처: LTA 부청장 면담 등

이 가운데 Cross Island Line으로 불리는 싱가포르 횡단철도는 싱가포르 섬을 동~서로 관통하는 총 연장 50~60㎞의 MRT를 건설하는 지하철 사업으로 2020년부터 3단계에 걸쳐 추진돼 2030년 완공 계획이다. 1단계는 Changi-Bright Hill 터널 구간(29㎞)과 12개 역사의 건설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2단계와 3단계 사업은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18개 역사가 포함될 계획이다. 이 MRT는 다양한 토종 동식물의 서식 환경이 조성된 CCNR(Central Catchment Nature Reserve) 지역을 통과해야 하기에 LTA는 1단계 이후 추진될 후속 단계에서 노선에 대한 2가지 옵션 중 하나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제1옵션: CCNR 지하 관통(4㎞, 지하 70m)
- 제2옵션: CCNR 지하 우회(9㎞, 지하 45m)

LTA는 2014년에 2가지 노선 옵션에 대해 2단계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EIA)를 진행했다. 2016년 완료된 1단계 평가보고서는 LTA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2단계도 2019년 9월 완료돼 업로드했으나, 노선에 대한 선호는 언급되지 않았다.

3 항만

싱가포르는 세계 주요 환적 허브항 중 한 곳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활동 증가, 확대되는 서비스 경쟁을 감안해 항구의 물동량 처리 능력을 높이고 최첨단 혁신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바로 투아스 메가포트(Tuas Mega Port)다. 이 프로젝트는 4단계로 추진돼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은 2018년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 공사가 진행됐으며, 15억 달러 규모의 2단계 사업은 Penta-Ocean, 현대건설, Boskalis International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3단계와 4단계 사업은 아직 계획 단계에 있는데,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항만의 처리 능력은 6500만 TEU로 확대될 전망이다.

4 에너지/전력

찬춘싱 통상산업부 장관은 얼마 전 개최된 싱가포르 국제에너지 주간 개막식에서 향후 50년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을 통해 향후 시장 전망을 유추해볼 수 있다. 에너지 수요는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천연가스로 충당하고 싱가포르를 글로벌 LNG 트레이딩 허브로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천연가스 도입선을 다양화하고 필요한 LNG 터미널의 추가 구축을 검토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고온다습한 날씨와 제조업 및 관광업 위주의 산업구조 등의 이유로 1인당 전력 소비량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석유·가스 등의 부존자원이 없어 발전 원료(천연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싱가포르는 이미 충분한 발전설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력부문 사업은 대규모 발전설비의 확보가 아닌 친환경에 중점을 둔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 주변국을 연결하는 지역 전력망 그리드 및 에너지 소비효율 제고 등에 중점을 둔 관계로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만한 대규모 도급사업을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다.

5 상수도

국토 면적이 좁기 때문에 수자원도 한정돼 있다. 현재는 저수지 담수, 주변국 수입, 재활용 및 해수 담수화 등의 방법을 통해 필요한 물 4억gal(갤런)/일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와 체결한 물 공급 계약이 종료되는 2061년 즈음 물 수요는 두배로 늘어나 8억gal/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변국을 통한 수입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이에 대비해 물 공급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5개의 NEWater(폐수를 정화해 만든 정제수) 처리 시설을 통해 재활용되는 물은 약 40%인데, 정부는 2060년까지 이를 55% 정도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에 지하 하수처리 터널 건설(Deep Tunnel Sewerage System)과 함께 2025년까지 투아스 물처리 플랜트(Tuas Water Reclamation Plant) 등 재활용 관련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 투자로 현재 운영하는 1개의 담수화 공장을 향후 최대 5개 건설해 담수화를 통해 공급하는 물의 비중을 30%로 높일 예정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장기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각 부문별로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국가청렴도 1위의 위상에 걸맞게 항상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꾸준함과 공정함이 보장되는 건설시장이기에 경쟁 또한 치열하다. 수주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도와 함께 한 차원 더 높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국토 면적이 좁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2** 대규모 매립공사 인 '투아스 핑거 3' 프로젝트에 우리 회사가 최초 개발한 콘크리트 양생 자동화 시스템과 공장형 케이슨 슬립폼 등 높은 기술력을 적용했다.

역사를 찾아가는 소도시 여행
근대 역사가 숨 쉬는 곳, 군산

여행에서 만난 인문학

최근 젊은 뚜벅이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하나가 전북 군산이다. '근대문화유산 투어'로 유명한 군산은 서울에서 당일치기로도 가능하며, 자전거 여행과 나이트투어, 시티투어 등 다양한 코스로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글·사진=엄지혜 작가

군산 앞 바다 전경

소설 『아리랑』 『탁류』의 배경이 된 도시

전라북도 군산을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은 '근대역사교육의 도시'. 일제강점기의 문화유산을 지닌 군산은 '근대문화유산투어'로 역사 기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고 있는 여행지다. 일제강점기 50여 년의 세월을 그린 조정래의 장편소설 『아리랑』은 항구도시 '군산'에서 시작된다. 전라도에서 생산된 곡물을 수탈해서 일본으로 실어 나른 도시가 바로 군산. 『아리랑』을 읽은 여행객이라면 근대역사박물관, 호남관세박물관, 부잔교, 철길, (옛)조선은행, 월명호수, 해망굴 등을 도는 '아리랑 코스'로 소설 속 배경을 살필 수 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군산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탁류(濁流)'. 1930년대의 사회상을 풍자한 채만식의 소설 『탁류』 또한 군산을 주무대로 쓰인 작품이다. 군산은 왜곡된 식민지 근대화의 핵심 도시였고, '탁류'가 흘렀던 항구도시, 근대화의 산물인 통신시설이 정비된 곳이며 식민지 경제의 상징인 일종의 도박장 '미두장'이 운영됐던 도시다. 조선은행, 미두장기념비, 째보선창, 빈해원으로 이어지는 '탁류 코스'를 거닐다 보면 정박한 배의 형상을 가진 '채만식문학관'이 나오는데, 중편소설 「배비장」의 육필 원고, 사진 자료, 편지, 채만식의 다큐멘터리 영상물 등을 볼 수 있다.

| 월명공원, 은파호수공원

서울에 남산공원이 있다면 군산을 대표하는 공원은 '월명공원'이다. 군산시 신흥동과 해망동에 걸쳐 있는 월명공원의 정상에 오르면 금강과 서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공원 정상에는 전망대와 바다조각공원, 수시탑, 삼일운동기념비, 개항35주년 기념탑, 생각하는 시민상, 채만식문학비가 있다. 공원 서쪽 설림산 기슭에는 고찰 은적사가 있으며, 점방산과 설림산 사이를 막아 만든 제일수원지가 있다.

은파호수공원 야경

군산시 나운동에 자리한 '은파호수공원'은 15세기에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 '미제지(米堤池)'로 나타나 있는 오래된 저수지에 조성된 호수공원이다. 봄에는 화사한 벚꽃길로 사랑받고 있으며, 애기바우, 중바우, 개바우에 대한 설화를 배경으로 형상화한 물빛 다리는 음악 분수와 함께 야경으로 유명하다. 은파호수공원은 인라인 스케이트장, 수변 무대, 연꽃 자생지 등 산책을 하며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은파호수공원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역 자원 콘테스트'에서 전국 100대 관광 명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 **월명공원** 전북 군산시 월명공원1길 26-3 063-454-2985
◎ **은파호수공원** 전북 군산시 은파순환길 9 063-454-4896

1 철길마을 2 초원사진관 3 해망굴

| 경암동 철길마을, 초원사진관, 해망굴

군산을 대표하는 포토 스폿은 '경암동 철길마을'과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의 촬영지 '초원사진관'이다. 경암동 철길은 일제강점기인 1944년에 신문용지 재료를 실어 나르기 위해 최초로 개설됐는데 TV·영화 등에 자주 등장하면서 여행 명소로 자리 잡았다. 예쁜 벽화와 추억의 상점 등이 자리하고 있어 군산 여행 기념 촬영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또 교복대여소가 마련돼 있어 70~80년대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여행객들을 흔히 만날 수 있다. 2014년 개봉한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의 90%를 경암동 철길마을에서 찍었다. 신창동에 자리한 '초원사진관'은 한석규와 심은하가 출연한 98년 개봉작 〈8월의 크리스마스〉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졌다. 원래 카페였던 곳이라 영화 촬영이 끝난 뒤 주인과의 약속대로 사진관을 철거했지만, 영화가 흥행하면서 군산시에서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복원했다. 영화가 개봉한 지 20년이 됐지만 군산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다.

월명산 자락 북쪽 끝에 자리한 해망령을 관통하는 터널 '해망굴'은 영화 〈박하사탕〉 〈오래된 정원〉 〈타짜〉 〈화려한 휴가〉 등의 촬영 장소로 유명하다. 식민지 수탈의 기지가 된 군산이 최고의 무역 호황을 누리던 1926년에 해망동과 중앙로를 연결하기 위해 건립됐다. 한국전쟁 중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국 지휘본부가 터널 안에 자리하게 돼 연합군 공군기의 공격을 받았던 역사의 현장이다. 현재는 보행자만 통과가 가능하다.

◎ **경암동 철길마을** 전북 군산시 경촌4길 14 063-453-4986
◎ **초원사진관** 전북 군산시 구영2길 12-1 063-446-5114
◎ **해망굴** 전북 군산시 군산창2길 48 063-453-4986

| 이영춘가옥, 마리서사, 장미갤러리

군산의 숨은 여행지 '이영춘가옥'은 군산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건물 중 보존이 가장 잘 된 별장주택. 아름다운 건물 외관으로 〈모래시계〉 〈야인시대〉, 〈빙점〉 등 많은 드라마 영화 촬영 장소로 사용됐다. 1920년께 일본인이 지은 별장으로 서구식과 일본식, 한식의 절충양식 건물이다. 해방 후에는 개정병원 원장이었던 이영춘 박사가 거주하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다. 이영춘 박사는 의사, 사회사업로서 농어촌 위생과 어린이 양육에 힘쓴 인물로 살아생전 '한국의 슈바이처' '예방의학의 선구자' '공중보건의 개척자'라 불렸다.

문화 체험을 좋아하는 여행객이라면 장미동에 위치한 '장미갤러리'를 방문해도 좋다. 장미(藏米)는 '수탈한 쌀의 곳간'이라는 뜻으로,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건축됐다 폐허가 된 건물을 2013년에 정비해 갤러리로 활용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총독부 주도로 대형화된 군산항은 우리 농산물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됐는데, 일제는 아예 동네 이름도 장미동으로 지었다. 현재는 법정 동명에서 사라졌다. 장미갤러리에는 전시장을 비롯해 군산방문 기념엽서, 나무목걸이 등을 만들 수 있는 체험학습장이 있고, 갤러리 옆에는 1930년대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에서 수탈한 쌀을 보관하던 창고를 개·보수한 장미공연장이 있다.

마리서사

군산에 가면 꼭 들러 보면 좋을 동네서점이 있다. 전북 월명동에 위치한 '마리서사'. 1945년에 시인 박인환이 서울 종로3가에서 운영하던 문학예술전문 서점의 이름을 따온 곳으로 당시 '마리서사'는 김수영·김광균·김기림 등 시인들의 아지트였다. 군산의 마리서사는 바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1940년대 마리서사를 재해석해 복원했다. 문학·그림책·여행지도 등을 판매해 아이들과 함께 군산을 찾은 가족 단위의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 **이영춘가옥** 전북 군산시 동개정길 7 063-453-4986
◎ **마리서사** 전북 군산시 구영5길 21-26 063-445-7364
◎ **장미갤러리** 전북 군산시 해망로 232 063-445-9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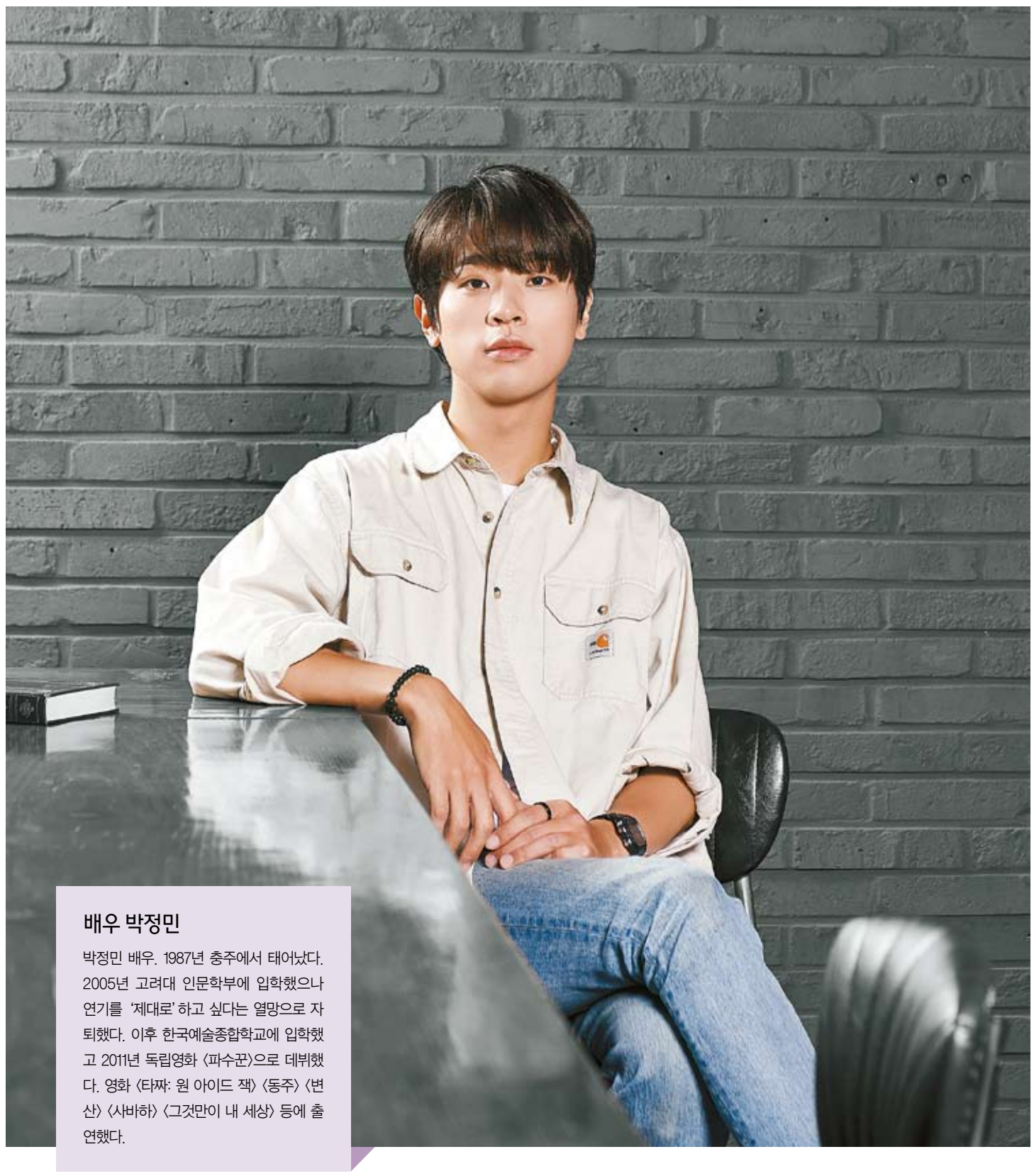
Vol 380
2019 / 11 / 21 Thu
http://news.hdec.kr

배우 박정민

충동적이지만 사려 깊게

피플 인사이드 서울 마포구 상수역 4번 출구 방향, 조금 한적한 거리에 배우 박정민이 운영하는 서점이 있다.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책과 밤낮'. 늦은 밤 자유롭게 책을 보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꾸린 서점이다. 2016년 10월, 박정민은 첫 에세이 『쓸 만한 인간』을 썼다. 그리고 3년 만에 개정증보판을 냈다. 조금 경솔했던 표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말을 고치고 싶었다. 작가를 꿈꾸지 않았지만 저자가 됐고, 책방지기를 상상하지 못했지만 서점 주인이 된 박정민. 어쩌면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가능했던 그 일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글 · 사진=〈채널예스〉 제공



배우 박정민

박정민 배우. 1987년 충주에서 태어났다. 2005년 고려대 인문학부에 입학했으나 연기를 '제대로'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자퇴했다.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했고 2011년 독립영화 〈파수꾼〉으로 데뷔했다. 영화 〈타짜: 원 아이드 잭〉 〈동주〉 〈변산〉 〈사바하〉 〈그것만이 내 세상〉 등에 출연했다.

『쓸 만한 인간』이 3년 만에 개정증보판으로 나왔어요.

사실 처음 책을 냈을 때 특별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써놓은 글이 있으니까 묶어서 내면 되겠지, 생각한 거라 3년 동안 리뷰도 거의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가끔씩 리뷰를 봤는데,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불편해했더라고요. 글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쾌한 단어와 문장과 문단을 삭제했어요. 괜한 짓일까 생각도 했지만 그저 사과를 하고 싶었어요.

한 시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산문집을 읽은 독자를 만나면 숨고 싶다"고.

숨고 싶죠(웃음). 초판본이 나왔을 때는 정말 숨고 싶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강했어요. '배우 박정민'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책을 통해 '박정민'을 알게 된 사람도 꽤 많았거든요. 되게 부끄러웠죠.

책방 이름이 '낮밤'이 아니라 '밤낮'이에요.

주요한 목적은 동네 사람들이 밤늦게 나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데 있었어요. 요즘은 밖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곳이 드물잖아요. 북 카페가 많아졌지만 대개 시끄럽고 문도 일찍 닫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여유 있게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배우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주잖아요. 이럴 때, 내 직업을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악용은 아닌 것 같아요(웃음).

중·고등학생은 책을 10% 할인해 주던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책을 정말 안 읽었거든요. 너무 공부만 해서 당시 유행했던 문화를 전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늘 아쉬워요. 공부 외의 다른 것을 좀 해볼 걸, 하는 후회가 있어서요.

어떤 독자가 블로그에 "박정민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서 부럽다"는 글을 올렸더라고요(웃음).

아, 사실이라서 할 말이 없긴 해요.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저도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남들보다는 조금 하고 있는 편인 거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당신들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고 말하기도 뭐해요. 저는 그냥 재밌어서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제 본업은 배우이잖아요. 연기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부러운 시선만큼 때때로 따가운 시선을 주기도 하죠.

연예인이니까 주목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남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저질러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하지?' 생각하고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한 다음에 시도하면 실수가 적을 텐데, 전 일단 해버린 다음에 실수를 수습해요. 이런 성격을 고치긴 힘들 거예요.

연예인이 서점을 열면 일단 대중들은 환영하죠. 그런데 1, 2년 있다가 문을 닫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꾸준했으면 하는 바람은 욕심일까요?

실은 저도 몇 년 동안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공간은 1년만 계약했어요. 지금은 서점이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오지만, 본업이 배우니까요. 누군가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야 하는 입장이라서 '과연 이 서점을 운영하는 일이 동료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도움이 안 될 일이라면요?

제가 이 공간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성격 자체가 솔직한 편이라 가식이 없으니까요. 서점을 운영하다가 말을 잘못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필터 없이 말이 나올 때가 있어서 그게 고민이에요. 저는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이 공간을 만들었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이에요. 얼마 동안 운영하겠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없이도 이 공간이 정체성을 찾아서 운영된다면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3년, 5년, 10년을 열어도 좋겠죠. 그런데 아직은 정체성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서점을 열고 언제 가장 기분이 좋았나요?

정신없이 사람들이 몰려 왔다가 싹 빠지고, 숨을 돌릴 때가 있어요. 이제 나도 책 좀 봐야지 생각하면서 서점을 쫙 둘러보는데, 손님들이 조용히 다 책을 읽고 계실 때 너무 뿌듯해요. 약간의 쾌감이라고 할까요? 손님 모두가 책을 좋아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서점에 왔으니 책 한 권 볼까?' 하고 꺼낸 책에 집중하고 계실 때, 너무 기분 좋아요.

최근 영화 〈타짜: 원 아이드 잭〉이 개봉했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도 촬영을 시작했어요. 요즘은 책을 볼 여유가 많지 않았겠어요.

원래 영화를 준비하거나 촬영할 때는 책을 안 봐요. 영화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차라리 시나리오를 더 보죠. 그런데 〈타짜〉를 찍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경주에서 쉬는 날이 있었는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대형서점에 가서 책을 한 보따리 사왔어요. 이틀 동안 책만 봤는데,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영화 생각이 안 나니까요(웃음). 요즘은 소설도 보고 에세이도 읽고 그래요.

『쓸 만한 인간』에 이준익 감독님이 하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과정이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말. 배우 박정민도 비슷한 생각으로 영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 스스로 재능이 뛰어난 배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건 그동안 해온 작품이죠. 〈파수꾼〉 2만 명, 〈동주〉 120만 명, 〈사바하〉 240만 명, 안 본 사람이 더 많은 영화들이죠. 하지만 저는 이 작품들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물론 저도 천만 관객이 보는 영화를 해보고 싶죠. 하지만 그건 내 욕심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 잘할 수 있는 영화를 하다 보면 되는 것이지 '천만 영화 할 거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산문집에 실린 글을 쓴 시기가 2013년부터예요.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해 본다면,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열심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열심히는 누구든 하거든요. 잘하는 게 문제지. 기준을 높여야 해요. 눈이 낮으면 그 이상은 못 가니까요. 어떤 일을 할 때 의미가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전 배우가 하고 싶어서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놀 걸, 하는 후회가 있거든요.

Vol 380
2019 / 11 / 21 Thu
http://news.hdec.kr

계동산책

고즈넉한 북촌 풍경에 반한 갤러리 더 스퀘어

1

갤러리 더 스퀘어

주소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128, 2층 201호
영업시간 평일 낮12시~오후8시, 주말 오후2시~8시
문의 @gallery_the_square(인스타그램)

2

3

4

1 갤러리 더 스퀘어의 전경, 바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기 좋다. 2,4 티 오마카세에 나오는 메뉴들. 3 시그니처 메뉴인 말차 칵테일, 직접 말차를 섞어서 맛 조절이 가능하다. 5 제철 과일과 함께 나오는 얼그레이 시폰 케이크.

가을볕이 좋아 걷다 보면 스산한 바람에 따뜻한 음료가 생각난다. 계동길 끝자락 중앙고등학교 정문 앞에는 차가워진 몸을 녹이기 좋은 티(Tea) 룸이 있다. 카페인지 의심스러운 201호 철문을 여는 순간, 시원하게 나 있는 창이 눈길을 끈다. 계동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갤러리 더 스퀘어'에서는 차와 달콤한 디저트, 한 끼 식사로 충분한 티 푸드까지 맛볼 수 있다.

이곳의 주력 메뉴는 단연 차(茶)다. 처음부터 유기농이 목표는 아니었지만, 원재료의 장점과 식품제조 과정을 생각하다 보니 유기농 차 전문 브랜드인 '리쉬(rishi) 티'를 선택하게 됐다고. 천연의 향으로 풍미가 깊은 리쉬 티를 다양한 방법으로 블렌딩해 새로운 퓨전 차를 선보이고 있다. 시그니처 메뉴는 말차 칵테일이다. 복숭아 향의 백차 베이스에 쌉싸름한 말차를 섞어 만든 차가운 음료로 탄산수 또는 무알코올 샴페인을 섞어 청량감까지 느낄 수 있다. 보이차를 반나절 우려내 저온숙성한 밀크티도 인기 메뉴다. 카페인이 걱정이라면 은은한 과일 향이 좋은 보태니컬 차를 추천한다.

티를 후식이나 디저트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념을 깨기 위한 식사메뉴 '티(茶) 오마카세'도 선보인다. 네 종류의 차를 제철 재료로 만든 식사와 함께 맛볼 수 있다. 샐러드와 샌드위치에는 식전주로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말차 칵테일, 홈메이드 쯔유를 곁들인 스테이크는 느끼함을 사라지게 할 따뜻한 백차가 나온다. 디저트는 달달한 케이크와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따뜻한 홍차가 준비돼 있다. 다양한 가짓수의 케이크는 아니지만, 계절별로 종류가 달라진다. 요즘은 유기농 얼그레이를 아낌없이 갈아 넣어 먹기 전부터 향긋한 얼그레이 시폰 케이크를 맛볼 수 있다.

모두의 취향이 존중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며 자신을 큐레이터로 소개하는 김혜나 대표의 운영 철학은 남다른 디자인의 그릇과 커트러리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갤러리 더 스퀘어에 어울릴만한 작가의 작품을 직접 선별해 손님이 작품을 자연스레 사용하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고. 반전의 매력이 곳곳에 숨겨진 이곳을 방문해 색다른 퓨전차를 마시며 취향까지 공유해 보는 것은 어떨까.

글=강은비 / 사진=이진우

5

SPECIAL EVENT
사원증 또는 명함을 가져가세요!
상시 10% 할인

현대건설 맛집 탐험단 Hyun-Chelin Guide

토목해외사업실 | 김중성 차장, 곽성진 사원

분위기와 필(Feel)이 넘치는 맛집입니다. 정갈한 음식과 향긋한 차를 멋진 한옥을 내려다보며 맛볼 수 있어 대접받는 느낌이었어요. 회사 앞에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카페가 있어 여행 온 듯 여유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방문하려고요.

구매실 | 조민영 과장, 김유리 대리

요즘 말로 '뷰 맛집'인 곳. 한옥 처마를 바라보면서 사장님과 소소한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201호 철문 입장부터 소소한 반전이 있어 보물찾기 하듯 방문해 보세요. 정성스러운 요리와 다양한 차를 즐기기 좋은 카페입니다. 점심시간 한적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적극 추천해요.

건설용어 쉽게 배우기

기억해 두면 좋을 아파트 공간

아파트에서 우리가 부르는 베란다(Veranda)는 과연 정확한 명칭이 맞을까.
건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용도 공간의 정확한 용어를 알아보자.

테라스(Terrace)

땅을 의미하는 '테라(Terra)'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 건축물과 땅 표면이 만나는 부분을 마감한 공간이다. 건물 안팎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정원으로 나온 오직 1층에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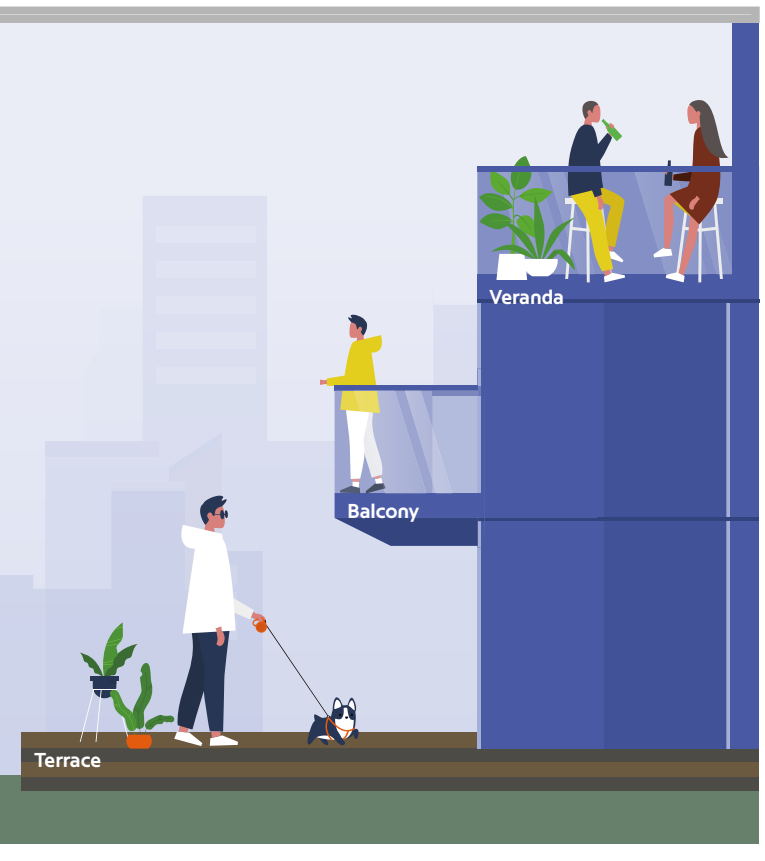
베란다(Veranda)

계단형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용도 옥외 공간이다. 아래층이 위층보다 넓어서 생기는 면적 차이로 아래층 지붕 부분을 윗층이 사용한다. 발코니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면적이지만, 베란다는 실내 공간과 연결되게 확장하면 불법 건축물이 된다.

발코니(Balcony)

건축물 외벽에 돌출된 형태로 설치되는 바닥 구조물이다. 건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을 위해 생긴 공간이다. 보통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지만 폐쇄형 발코니가 많은 우리나라 아파트에서는 외부로 노출된 발코니를 보기 어렵다. 국내 건축법상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가 최근 많아지는 추세다.

+잠깐!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① 실내 공간을 넓게 활용 ② 서비스 공간인 발코니 면적은 분양가 및 세금 산정에서 제외 ③ 발코니 면적을 이용해 알파룸 또는 팬트리 등 특화설계 가능



Exhibition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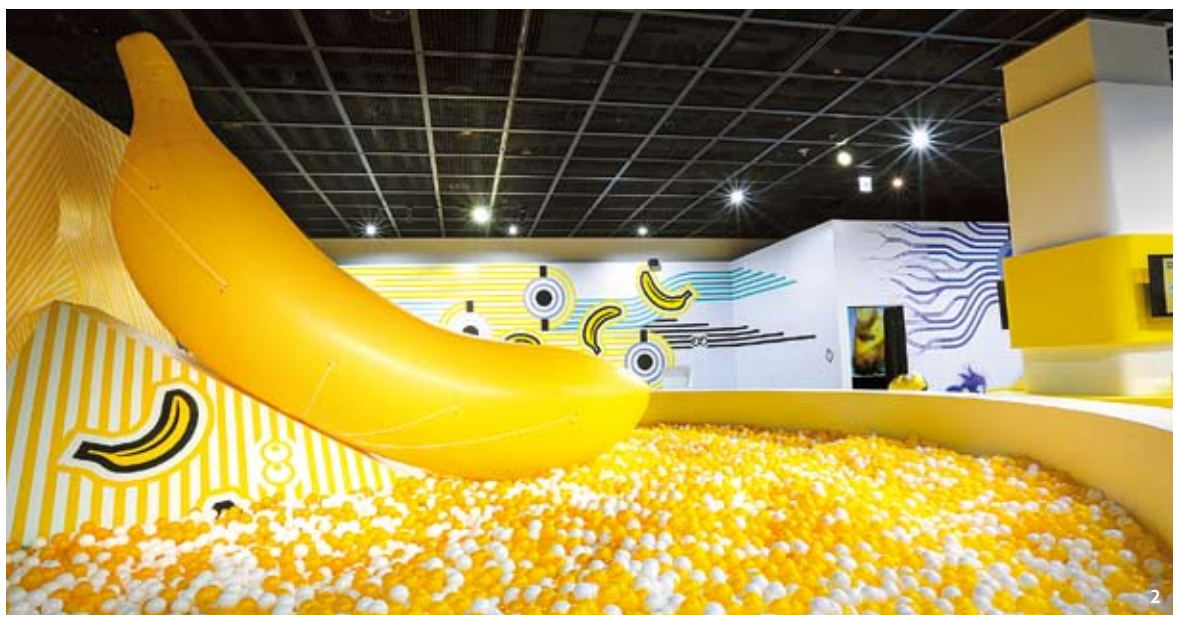
미니언즈 특별 展

2019.10.22~2020.3.15

인사 센트럴 뮤지엄
02-325-1077

일루미네이션 스튜디오를 사랑하는 팬들이 열광할 '미니언즈 특별'展이 한국을 찾았다. 세계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전 세계를 강타한 애니메이션 영화 〈슈퍼배드〉와 〈미니언즈〉 캐릭터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다양한 콘텐츠로 알차게 준비됐다. 최초로 공개되는 캐릭터 탄생 과정 아트워크와 제작자의 인터뷰 영상, 애니메이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한 전시장과 실물 스케일의 3D 캐릭터까지 볼거리가 풍부하다. 수만 개의 미니언즈 볼이 가득 찬 대형 바나나 볼 풀장 등 인터랙티브 체험 전시장은 전 연령대의 흥미와 오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전시 공간부터 아트숍까지 이어지는 내·외부 공간 또한 애니메이션 특유의 색감과 통통 튀는 분위기를 살렸다. 전시는 '극장과 갤러리'를 시작으로 '악당 그루의 실험실' '걸즈룸' '미니언즈 연대기' 등 테마별로 섹션을 나눠 구성했다.

영화 속에 들어온 듯 유쾌한 기분을 만끽하고 싶다면 미니언즈 특별展에 방문해 보자. 남녀노소 불문하고 미니언즈 캐릭터와 함께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다.


2

3

4

1 그루스랩(Grus Lab) 전경.
2 바나나 볼 풀장.
3 걸즈룸(Girls Room) 전경.
4 미니언즈 영상룸.
5 미니언즈 존(Minions zone) 전경.
사진=gncmedia 제공

5